【추천석사논문】

# 일제 말기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젠더 표상 연구*

윤 아 영**

차 례

Ⅰ. 서론
Ⅱ. 일본인의 만주 개척과 제국의 (불)가능성
Ⅲ. 자치 공동체의 기획과 추방당하는 딸
Ⅳ. 제국의 기획과 탈식민의 (불)가능성
Ⅴ.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대륙』,『북향보』,『처녀지』를 중심으로 일제 말기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젠더 표상을 분석한다.『대륙』의 유키코는 일본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상류층 지식인으로 오야마와 약혼했다. 유키코는 오야마에 의해 식민주의와 경제적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만들어진다. 유키코는 오야마를 향한 사랑을 이타주의로 전환하여 정체성을 재구축한다.『북향보』의 정애라는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만주에서 벗어나 성악가로서의 꿈을 실현하길 희망한다. 만주에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물들과 다르게 정애라는 개인적인 삶을 지향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애라는 외부로 추방당한다.『처녀지』의 선주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여성으로 남표와 파혼했다. 의료개척 서사의 외부에 존재하던 선주는 남표에 대한 사랑을 통해 서사 내부로 진입한다. 선주는 남표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선주는 죽음을 선택한다. 만주

* 이 글은 윤아영, 2020,『일제 말기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젠더 표상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요약한 것이다.

**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졸업.

www.kci.go.kr

개척 서사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려는 여성들의 움직임은 항상 존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배 담론이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만주 개척 서사는 단일한 주체를 상정하며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해왔다. 이것이 여성에 대한 재현 방식과 결합될 때 침묵의 문제를 야기한다. 재현의 영역에서 벗어난 인물들은 배제되거나 추방당하기 때문에 해석 불가능한 존재로 남는다. 여성들의 경험 세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추적한다면 만주 개척 서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대륙』, 『북향보』, 『처녀지』, 젠더, 공동체, 타자

# Ⅰ. 서론

1932년 관동군은 만주 지역을 중국 본토로부터 분리해 만주국을 건설한다. '왕도낙토(王道樂土)'와 '오족협화(五族協和)'를 표방한 만주국은 관동군의 통제를 받는 독립국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실험장으로 존재했다.[1] 일본에 의해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만주는 조선인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조선인은 식민지 조선과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수용함으로써 만주국의 국민으로 만들어졌다. 조선인의 정체성은 '오족협화(五族協和)'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길항하며 형성되었다.[2] 이들은 만주를 경유함으로써 이상을 실현할

1) 1932년에 건설된 만주국은 독립국가의 형태로 출범했으나 독립국이라는 형식을 통한 관동군의 독특한 지배전략에 의해 성립된 식민지였다. 1차 세계대전의 잔혹성과 대량 살상에 대한 반작용은 평화에 대한 갈구를 유발했으며 일본에서는 군의 입지를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에 걸쳐 군의 불만은 여러 건의 암살과 쿠테타로 표출되었다. 관동군은 만주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국을 건설하는 전략을 취해 일본 본국이 관여할 수 없는 변방 세력권을 구축하고자 했다. 공식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 만주국은 형식적으로 일본 본국과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관동군이 도쿄의 명령을 거부할 법적 지위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석정은 '국가 효과'라는 개념을 통해 만주국의 성격을 규명한다. 만주국은 1932년 3월 독립을 선포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이래 독립국적 지위를 얻은 적이 없으나 실제 구조처럼 보이게 하는 시각적·언술적인 실행을 통해 '국가로서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석정, 200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참조.

www.kci.go.kr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타진했다. 특히, 민족말살정책이 추진되던 식민지 조선과는 다르게 만주에서의 문학 활동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작가들은 문학동인 '북향회'를 조직하여 문예지『북향』을 발간하거나『만선일보』지면에 소설을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이어나갔다.

일제 말기 만주 개척 서사는 대체로 만주로 이주한 농민들의 애환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만주는 수난의 극복을 통해 '조선'을 발견하는 공간이었다. 척박한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조선인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중국인 지주와의 투쟁 양상이나 고난을 극복하고 수전개척을 성공시키는 모습은 조선인의 영웅성을 부각시킨다. 위와 같은 서사에서 수전개척은 조선인의 삶을 환기하는 지표로 형상화된다. 수전개척에 성공한 조선인의 역사가 집단 기억을 생성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은 조선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최종심급으로 작용하며 이상적인 공동체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젠더를 시야에 두고 해석할 때 위와 같은 서사 속에서 공동체를 창출하는 방식이 간단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만주는 정체성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고 수난 극복을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수전개척의 전경화를 통해 만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서사에서는 영토를 직접적으로 개척하는 농민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은 서사의 후경으로 밀려나며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주변화를 통해 성립할 수 있던 것이 만주 개척 서사라면 방법론으로서의 젠더를 통해 이들의 존재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대륙신부 송출사업[3]을 통해 만주로 보내진 여성들의 역할에

---

2) 김재용, 2006,「일제말 한국인의 만주인식: 만주 및 '만주국'을 재현한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12, 동북아역사재단, 87쪽.

3) 대륙신부 송출 사업(大陸の花嫁)은 만주로 이주한 남성 개척 단원의 가정 구성과 만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일본이 대규모로 추진한 이민 사업의 보완책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곽규환·김해림, 2018,「만주국 시기 일본인의 여성 동원과

주목한다. 대륙신부로 호명된 여성들은 가정에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의 정체성은 아내와 어머니라는 범주 안에서 구성되며 만주국 내부에서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만주로 이주하는 것을 결정한 여성들의 동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대륙에 대한 동경, 봉건적 농촌 질서와 집안 제도의 굴레로부터의 해방 욕구, 경제적 요인, 사명감[4]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여성들의 만주 진입을 가능하게 했다.

여성들이 개인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이주를 선택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정체성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개인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대륙신부 송출사업이 노정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국가가 여성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 젠더 정치에 주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과 국가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대륙신부 송출사업과 마찬가지로 만주 개척 서사에서도 젠더에 기반한 역할모델이 만들어진다. 개척행위를 하는 남성과 이를 보조하는 여성이라는 역할모델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공동체가 구현된다. 정체성의 정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사 내부로 수용할 수 있는 구성원의 범주가 설정된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파생된 식민구조 안에서 조선인은 하위범주에 위치한다. 서사의 중심에 제국과 식민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피지배계급으로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이 구축된 상황에서 저항의 방향은 식민지 '외부'로 향한다. 만주 개척 서사에서 민족과 국가의 알레고리로 여성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민족과 국가의 관계 속에서만 여성이 재현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재현의 영역을 벗어난 인물들은 추방되기 때문에 해석 불가능한

---

만주 이민: 만주개척여숙 사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5, 만주학회; 곽규환 · 김해림, 2020, 「만주국 시기 일본의 대륙신부 정책의 성립과 전개-일본 현지 대륙신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비교중국연구』 1(2), 2020; 박정애, 2020, 「조선인의 만주 이주 정책과 '대륙 신부'」, 『여성과 역사』 33, 한국여성사학회; 서호철, 2011, 「국제결혼 중개장치의 형성- 몇 가지 역사적 계기들」, 『사회와 역사』 91, 한국사회사학회.

4) 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 :「満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舎, 12쪽.

www.kci.go.kr

존재로 남는다.

이에 본 논문은 『대륙』[5], 『북향보』[6], 『처녀지』[7]를 중심으로 일제 말기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젠더 표상을 분석한다. 『대륙』의 유키코는 일본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상류층 지식인으로 오야마와 약혼했다. 유키코는 오야마에 의해 식민주의와 경제적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만들어진다. 유키코는 오야마를 향한 사랑을 이타주의로 전환하여 정체성을 재구축한다. 『북향보』의 정애라는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만주에서 벗어나 성악가로의 꿈을 실현하길 희망한다. 만주에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물들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애라는 외부로 추방당한다. 『처녀지』의 선주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여성으로 남표와 파혼했다. 의료개척 서사의 외부에 존재하던 선주는 남표에 대한 사랑을 통해 서사 내부로 진입한다. 선주는 남표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한다.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선주는 죽음을 선택한다. 『대륙』의 유키코, 『북향보』의 정애라, 『처녀지』의 선주는 지배 담론을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며 서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균열을 낸다. 이들의 경험 세계를 중심으로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추적해나간다면 만주 개척 서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Ⅱ. 일본인의 만주 개척과 제국의 (불)가능성

『대륙』에서 일본인의 만주 개척은 일만(日滿) 경제블록이 구축된 상황에서 추

5) 한설야의 『대륙』은 1939년 6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17회에 걸쳐 『국민신보』에 연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 역락에서 출간된 『대륙』을 원본으로 한다.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아야코 타카하시의 「한설야의 『대륙』연구: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를 참조한다.

6) 안수길의 『북향보』는 1944년 12월부터 1945년 4월까지 139회에 걸쳐 『만선일보』에 연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글누림에서 출간한 안수길 전집 3권에 수록된 『북향보』를 원본으로 한다.

7) 이기영의 『처녀지』는 1944년 9월 삼중당서점에서 간행된 단행본으로 최근 1943년 1월 27일자에 『만선일보』에 연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역락에서 출간한 『처녀지』를 원본으로 한다.

www.kci.go.kr

진된다.[8] 일본인 기업가들은 만주국 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금광 개발에 나서며 지하자원을 독점한다.[9] 이들의 역할은 만주를 일본 제국의 영역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금광 개발에서 생산된 이익을 본국으로 유입하는 것이다.

만몽모직회사를 운영하는 고토는 본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적 의식을 내면화한다. 고토는 이토 히로부미를 대륙 경영에 모범을 보인 인물로 평가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청나라 말기 민족 간의 내분이 발생한 상황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킨다. 고토는 이토 히로부미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외부로부터 고립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 사회를 장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만주 진출은 대외팽창의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 “섬나라 근성에서 벗어나 대륙적인 영기를 키”움으로써 “확고한 세계의 맹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본받아 “대륙 경영 및 흥아(興亞)의 대정신”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10]

---

8) 대공황 이후 세계 자본주의 각국은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블록 구축과 경제통제를 통해 체제위기를 타개함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국가독점자본주의화가 진행되었다. 후발자본주의국가인 일본 역시 만주 침략에 이은 日滿경제블록의 구축과 경제통제를 통해 체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블록간의 대립과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일제는 군부 주도 아래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나아가 전시총동원·군부파시즘체제를 구축하면서 円블록 戰時經濟統制를 통해 식민지·점령지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수탈·물자동원체계를 확립해나갔다(방기중, 2003,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동방학지』 12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75쪽).

9) 1930년대 금광열의 직접적인 계기는 금값 폭등이었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체제의 내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1930년대 초 일본은 ‘쇼와금융공황’으로 심각한 금유출 현상을 겪고 만성적 불황 위기에 몰렸으며 전세계적으로 금본위제가 정지되면서 전쟁을 위한 군비 확충과 함께 유일한 국제 통화인 금의 확보가 절실해진다. 전쟁물자 결제수단으로서 금의 확보가 더욱 필요해지자, 1933년 ‘저품위 금광석 매광 장려금 교부규칙’을 반포해 전국적으로 금광개발 과열현상을 일으켰다(이미나, 2013, 「1930년대 ‘금광열’과 문학적 형상화 연구- 광업조선  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5, 겨레어문학회, 115-116쪽).

10) 『대륙』의 하야시는 만주 개척에 참여하는 대재벌이나 이권을 쫓는 사람들을 국가 권력까지 이용하여 있는 대로 사욕을 채우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고토 사장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확인한다. 고토 사장의 만주 진출 동기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이 헌신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여되어 있다. 사익 추구라는 개인적인 욕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야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들과는 만주 진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만주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권력은 제국주의적 욕망을 내면화한 주체를 통해 확장된다. 토산자 개척 사업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일본인으로서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모든 주체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1920년대 공황은 일본 사회에서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며 지배와 종속 관계를 양산했다.[11] 만성적인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본은 하나의 권력체계로 등장한다. 거대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영향력을 확대한다. 고토는 세계 대공황 당시 재산을 잃은 오야마 겐지를 도와준다. 자본에 의해 고토에게 오야마 겐지가 경제적으로 예속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키코와 오야마의 약혼이 추진된다. 이들의 약혼은 고토와 오야마 겐지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고토는 유키코가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고토 집안은 이미 거대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기에 유키코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손해보지 않는다. 일본인 기업가들의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키코가 오야마의 환심을 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약혼이 유키코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그녀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패권주의적 욕망을 내면화한 고토에 의해 유키코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권력을 수행하는 주체로 형상화된다. 동경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이후 유키코는 일본에서 의사로 활동한다. 고토는 유키코가 “봉천이나 신경에서 개업하여 동양 평화를 위해 우방 만주국에 몸과 마음을 바쳐”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유키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된다. 동양 평화라는 사회적 당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키코는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만주에 진출해 일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고토의 바람과는 달리 유키코는 만주에서 오야마와의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한다. 유키코는 오야마와 형식적으로 맺어진 사이를 사랑에 기반한 관계로 전환하

11) 1920년대 일본의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 참조(하종문, 2009,「일본의 쇼와공황과 민주주의의 엇박자」,『역사비평』87, 역사비평사).

www.kci.go.kr

려고 하지만 거부당한다. 유키코와의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오야마의 마음이 조마려를 향하기 때문이다.

오야마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내면화한 인물로 등장한다.[12] 그는 조마려와의 사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만주인'[13]의 타자성을 인식한다. 오야마는 고토에게 만몽모직회사의 직원으로 조마려를 추천한다. 만몽모직회사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물질적인 관계로 환원된다. 만주의 토착세력은 만몽모직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

패권주의적인 욕망을 내면화한 고토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을 인식한다. 일본은 국제 사회의 중심이 되는 국가이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주변부에 해당한다. 조마려가 도시 생활을 하고 근대식 교육을 받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고토의 입장에서는 변방부에 속한 '만주인' 여성에 불과하다. 오야마가 조마려의 근대적인 특징을 내세우더라도 한적한 산골 출신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고토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

또한, 고토에게 여성의 몸은 언제나 응시의 대상이다. 고토의 욕망은 여성의 육체에서 젊음을 발견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젊음을 향한 고토의 욕망과 민족적 특징에 기반한 섹슈얼리티가 결합될 때 조마려의 신체는 민족, 성별, 계급에 의해 삼중으로 억압된다. 고토 사장은 자신에게 생기를 불러 일으키는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조마려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한다.

---

12) 마적 토벌을 통해 주권을 직접적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은 제국주의적인 남성성을 내면화한다. 영토를 확보한다는 목적은 만주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일본인은 마적을 토벌하고 영토를 장악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권력을 실현시킨다. 일본인의 지배력이 관철되는 공간에서는 폭력이 지배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일본인의 개입으로 인해 토산자에 마적이 유입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도 오야마를 비롯한 일본인들은 타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토산자에 존재하는 토착민들은 조집오와 다른 예외적인 존재로서 가시화 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인들의 세계에는 타자로서의 토착민은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오야마가 제국주의 체제의 내부에서 지배자의 시선을 공유할 때 식민지적 관계를 생산하는 구조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13) 만주국 정부에 의해 고안된 '만인'은 새로운 관념적 구성물이다. 만주국 경영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만주를 분리시키고 중국과 국제 사회에 대해 그 주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제시한 인간형이다. '만인'은 만주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집단을 가리키지만 내용상 전 주민의 95%이상을 차지하는 한족과 2.4%를 차지하는 몽고인 등을 뜻한다. 이 범주 안에 조선인과 일본인은 제외되었다(한석정, 2007, 앞의 책, 165쪽).

www.kci.go.kr

조마려가 고토의 호출을 거부할 수 없던 이유는 사장과 직원이라는 권력 관계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고토의 성폭행[14]은 조마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오야마는 이들이 늦은 시각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만들어낸다. 조마려의 행동에 자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위 사건을 "사랑하는 사람의 부정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야마는 조마려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마려가 "비행"이 아니라고 말해도 오야마는 이를 거짓으로 받아들인다.

조마려가 오야마에게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에는 '민족'이라는 관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야마가 일본인으로서 고토 사장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마려는 만주에서 식민지적 현실을 살아간다.[15] '만주인'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화된 존재로 만들어진다. 일본 제국주의가 고안한 위계질서에서 '만주인'은 열등성을 내재한 민족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만주국이 '만주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식민 구조에 의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가장 내밀한 감정인 사랑에 민족적인 위계가 반영되는 순간 오야마와 조마려는 제국과 식민의 관계로 전환된다. 오야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사랑을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실천으로 변화시킬 것을 다짐한다.

『대륙』은 조마려와 오야마의 사랑을 통해 오족협화를 실현하는 소설이다. 이

14) 조마려에 대한 고토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다. 고토는 응급실로 그녀를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조마려가 사장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15) 조마려는 오야마와의 관계에서 만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고자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만주인은 민족적인 위계에 의해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조마려는 두도구에 있는 조집오의 집이나 만몽모직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잠시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지나옷을 입고 생활한다.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사적인 공간은 제국주의가 만들어내는 질서가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만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인 오야마를 만나기 위해서 외출을 할 때 조마려는 양장이나 오야마가 선물한 투피스를 입는다. 지나옷은 만주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통 의상이므로 이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조마려가 만주인이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일본인 남성과 만주인 여성의 만남은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기 때문에 조마려는 오야마를 위해 만주복을 갈아입고 싶어 한다.

www.kci.go.kr

들의 사랑은 민족 간의 위계질서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지만 유키코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른다. 오야마와 유키코는 약혼을 바탕으로 사회적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유키코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야마와 조마려의 사랑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탈적 행위에 가깝다. 오야마와 조마려의 사랑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혼이라는 제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야마와 유키코 사이에는 자본에 의한 위계가 설정되어 있다. 오야마의 내면에는 진심을 표현할 수 없는 검열 체계가 작동한다. 유키코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유키코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아래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벌써 9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마려와 약속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유키코의 동경 이야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았는지 오야마는 미열을 느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니.”오야마는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머리를 쓸어 내렸다. “약을 드리는 걸 잊었네요.” 그녀는 올 봄에 동경 여의전을 나온 여의였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종이봉투를 꺼내 안에 있는 조그만 봉지를 오야마에게 건네며 수상하다는 듯이 오야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동경에서 준비해 왔어요.”오야마는 말없이 받아 들고 중절모를 집었다. 유키코는 그 모양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물었다. “가는 거예요?”오야마는 두 손으로 뒷 짐을 지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가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기도 한 애매한 얼굴을 했다. 밖에 분수의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오야마는 털썩 앉아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 놓았다. “하야시 군에게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되고”다시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오야마 자신조차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했다. 마치 의식이 잠을 자는 것만 같았다. 그는 머리를 숙였다. 마려와 약속 한 아홉 시가 걸렸다. “가시게요?”그녀는 다시 물었다. 쓸쓸함이 그 눈에 가득 찼다. 그 소리는 미묘하게 떨려 사라지지 않는 여운이 되어 귓가에 맴돌았다.(81)

유키코는 오야마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늦은 시간까지 동경 이야기를 한

www.kci.go.kr

다. 유키코와 오야마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대화 공간은 서로에게 다른 의미를 가진다. 유키코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나 오야마는 자신을 기다리는 조마려를 생각하며 대화를 중단하고 싶어 한다. 토산자 개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키코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그는 유키코에게 조마려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다. 오야마의 애매한 태도는 대화 사이의 공백을 만들어낸다. 유키코가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침묵이 이어지거나 다시 조용해지며 그녀의 말이 이어질 수 없게 만든다.

이들의 관계는 오야마와 조마려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악화된다. 만주국 내부 구성원의 지위가 민족적 위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했을 때 일본인과 만주인의 사랑은 공동체적 정서에 위배된다. 조마려 앞에서 자신에게 친근하게 행동하는 유키코의 행위는 민족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는 행동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조마려와의 관계에서 오야마 스스로가 제거하고자 하는 요소를 투영한 것에 가깝다. 조마려와의 사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본인의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 오야마는 유키코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민족적인 우월감에서 분리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한다.

오야마에 의해 유키코는 식민주의와 경제적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만들어진다. 유키코는 부정적인 표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녀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대륙』의 서사 마지막에서 유키코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축한다.

유키코의 시선에서 포착된 만주는 직업적인 사명감이 발견되는 공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유키코의 생활 세계는 동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유키코는 오야마와의 대화에서 대부분 동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만주는 “긴자”, “제국 극장”, “아타미”, “6대학 리그”가 있는 동경을 상기시키는 공간인 것이다. 유키코는 다양한 문물을 즐길 수 있는 동경을 좋은 곳이라고 표현한다. 유키코의 활동 반경은 일본과 만주를 아우르고 있지만 만주 내부에서는 축소된 형태로 나타난다. 만주는 유키코가 활동하기에는 불리한 공간이지만 오야마를 향한 마음이 만주 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유키코는 오야마와 함께 만주에서 “굳은 결심”으로

www.kci.go.kr

꽃 피워 보겠다고 결심한다.[16]

『대륙』에서 구현하는 사랑이 문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발생한다. 오야마는 유키코에게 파혼을 제안할 수 없다. 오야마는 아버지에게 조마려를 위해 유키코와 파혼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파혼의 주도권이 유키코에게 있다는 사실은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오야마의 사랑 자체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야마는 만주에서 개척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국민국가가 만들어낸 권력체계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위 범주로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오야마 스스로가 약혼이라는 제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야마의 사랑은 사회적인 실천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국민국가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한 오야마의 사랑은 제국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역설적으로 유키코는 오야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파혼을 선택한다. 죽음 앞에서 오야마가 조마려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른다는 사실은 유키코가 사랑의 관계에서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마적의 습격[17]으로 인해 오야마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유키코는 그의 진심을 처음으로 듣게 된다.

---

16) 유키코의 "굳은 결심"은 텅 빈 기표로 존재한다. 유키코가 만주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여기가 재미없으면 동경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유키코는 오야마에게 동경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한다. 오야마는 이를 거부하고 만주에 남아있겠다고 말한다. 유키코는 자신도 만주에 남아있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굳은 결심으로 이 땅에서 꽃을 피워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다. "굳은 결심"은 만주 개척에 대한 사명을 나타내는 기표로 등장하지 않는다. 만주에 남아있으려는 오야마에 의해 촉발된 우발적인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유키코의 만주 정착 의지로도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오야마가 머무는 곳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만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정착도 가능한 것이다. 위치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결심이라는 점에서도 "굳은 결심"은 모순을 내포하게 된다.

17) 만주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마적이라는 존재는 제국의 영역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위를 규율하는 체계를 만들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만주의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지배력을 확장한다. 이러한 권력체계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제국이 지배력을 행사할 영토를 필요로 할 때 마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제국의 영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마적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만주의 영역과 겹치게 되고 일본인과 마적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마적은 촘촘한 권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유지되는 일본 제국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다. 마적의 존재 방식에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 무정형성이라는 특징을 갖추었기 때문에 마적은 제국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www.kci.go.kr

죽음의 공간은 인간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을 무효화 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체계도 유입될 수 없다. 오야마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현실을 억압하는 요소들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야마의 진심이 드러날 수 있었다. 오야마는 조마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유키코와의 약혼은 족쇄와도 다름없는 것이다. 유키코에게 중요한 것은 오야마의 행복이다. 유키코는 약혼을 파기하고 오야마에게 조마려와의 결혼을 제안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유키코는 오야마에 대한 사랑을 이타주의로 전환하여 만주 개척에 참여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든다. 유키코는 병원에서 오야마를 비롯해 수많은 부상자를 보며 의료 행위를 통해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결심한다. 유키코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타주의다. 유키코가 수용한 이타주의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수사는 의사로서의 직업정신을 구축할 뿐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지 않는다.

유키코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파생된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제국의 여성으로 등장한다. 유키코는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여성으로 만주에서도 권력의 상층부에 위치했다. 만주 개척은 고토 사장의 자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국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주에서 다른 민족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위 범주로의 진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키코의 이타주의에는 식민지적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

유키코가 『대륙』의 서사 내부로 유입되기 위해 수용한 논리는 일관성 있게 통일되지 않는다. 고토는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만주에 진출해 유키코가 일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륙』을 유키코의 정체성 구축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그녀는 의료행위를 통해 만주 개척에 참여하기 때문에 고토가 설정한 정체성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오야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유키코를 약혼이라는 제도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 유키코의 만주 진입은 오야마에 대한 사랑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헌신해야 한다는 고토의

www.kci.go.kr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마찬가지로 유키코가 수용한 이타주의는 환자에게 헌신한다는 직업정신으로 존재한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파생된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제국의 여성으로 등장한다는 점으로 인해 유키코의 이타주의에는 식민지적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개인의 정체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고정될 수 없으며 견고해보이는 지배 이데올로기조차 유동적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 Ⅲ. 자치 공동체의 기획과 추방당하는 딸

『북향보』의 정학도는 만주국 건국 이전부터 오찬구의 아버지인 오준섭과 함께 간도를 개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노년의 일생 사업으로 북향정신[18]에 기반한 농민 도장 건설에 매진한다. 정학도의 북향정신은 도혼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 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벼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조선 사람들의 도혼 정신은 정착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만주국 농업정책의 변화[19]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혼 정신이 농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없게 되자 정학도는 만주의 실정에 맞는 농민도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한다. 정학도는 만주의 실정에 맞는 농민도를 형성하기 위해 북향도장에 주목 한다. 북향도장은

18) 『북향보』연구는 안수길이 제시한 북향정신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북향정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이해영, 2017, 「'만주국'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만주연구』 23, 만주학회; 김종호, 1993, 「1940년대 초기 만주 유민소설에 나타난 '정착'의 의미-「대지의 아들」과 「북향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국어교육학회, 1993; 서재길, 2012, 「안수길 장편소설 〈북향보〉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6, 한국문학연구학회).

19)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만주에 들어온 농업 이민단은 자작농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오래된 관행 농법을 깨고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관과 민이 협력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도입해 상호 경쟁적인 전문적 농업 기술을 시험하게 된다. 실제로 만주국이 내세운 영농낙토론이 일본이 전시체제에 돌입한 후 안정적인 군량미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던 것은 식민지 조선의 식량 사정이 갈수로 악화되어 새로운 식량 공급지를 마련해야했던 사정과 대단히 밀접하다. 그 결과 만주 개척은 시종 '국책'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김주현은 근대적 영농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농사를 자연이 주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기술 이성이 개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말한다(김주현 · 권혁건, 2011, 「일제 강점기 만주의 농업 기술을 통해 본 민족 문제 시론(試論) - 안수길의 작품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209쪽).

www.kci.go.kr

영농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축농업이라는 만주국의 토대 위에 건설된다. 만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북향도장에서 확고한 지도정신을 가진 지도자로부터 영농 기술을 배우며 농민도를 습득할 수 있다.

정학도의 사업은 목장의 운영을 통해 도장경영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향도장을 설립하여 북향정신에 기반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는 단계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목장의 경영이란 최소한 3년 간의 적자를 예상해야 한다.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목장을 운영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던 정학도는 주주들의 투자를 받는다. 주주들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목장에 투자했다. 목장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주주들은 정학도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목장을 처분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학도의 사업은 유언[20]을 통해 오찬구에게 계승된다. 북향정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에 의해 목장이 종속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주주들의 자본을 대체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자본이다. 정학도는 북향정신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을 결집시켜 목장을 세속적인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21] 반면 정애라는 성악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오찬구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삶이 예정된다. 정애라는 결혼의 형태로 만주 개척에 참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정애라가 가족 단위에서 아내나 어머니의 자격으로 등장할 때 공동체의 일원

20) 정학도의 유언은 다음과 같다. “찬구, 찬구 하나만 믿네. 목장, 학교, 그리고 도장, 모두 자네에게 맡기네-. 내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오직 찬구가 대신해서 해 주게. 믿네. 내가 죽는 것 같아 겁이 나서 말이 없는가. 아닐게, 내 만사를 잊고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걸세. 또 한가지 부탁이 있네. 애라를 부탁하네. 애비와 에미를 닮지도 않은 딸일세. 애비와 에미가 길들이지 못한 것을 맡기긴 미안하나, 찬구에게 밖에 의탁시킬 데 없네.”(27-28)

21) 이는 오찬구가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오찬구는 가장 가까이에서 북향정신의 실현을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북향정신이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이상 정학도와 함께 만주 개척을 했던 세대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정학도와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찬구 자신의 세대와도 연결된다. 아버지 세대와 본인 세대를 규합할 수 있는 힘이 오찬구에게 존재한다.

www.kci.go.kr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다른 가능성을 『북향보』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정애라의 어머니 윤씨는 정애라와 오찬구의 관계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윤씨는 서로에 대한 호칭을 다르게 부르도록 지시한다. 호칭의 변화는 상대방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남매와 같은 사이로 허물없이 지내왔지만 호칭을 통해 서로에 대한 격식을 차리게 되는 것이다.

> '옳아, 어머니께서 선생이라 부르라 하시고 찬구가 애라씨의 씨자를 붙여……. 옳지, 알았다. 나를 찬구와 결혼시키자는 홀림판이구나…….' 애라는 정신 상태가 흥분하고 무엇에 분노를 느끼면 심정이 날카로워지고 따라서 뇌의 활동이 대단히 명민하게 되는 터이라 아까까지 무심히 웃어넘기었고 대범하게 지나쳤던 찬구의 호칭도 지금은 흥분하고 분노한 그의 뇌에는 그 감춘 뜻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림없지' 애라는 더욱 노하였고 구역질이 났다. '그래, 애라가 찬구 따위와 결혼해. 그의 아내가 돼. 망칙한 일도 다 있네.' 그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그 농군과 다름없는 찬구와 결혼해. 그리고 이 촌에 묻혀 일생을 보내어. 안될 말, 어림도 없는 일.' 애라는 이렇게 생각만 하여도 앞날의 꿈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 같았다.(88)

정애라는 오찬구와 자신을 결혼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도를 알게 된 순간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분노한다. 정애라는 오찬구와의 혼인에 대해 "망칙한 일이자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애라는 오찬구를 "농군"으로 규정한다. 농촌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정애라에게 농민의 아내라는 삶은 족쇄가 된다.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은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농촌에는 정애라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애라는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도시에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촌에 묻혀 일생을 보내"는 삶은 성악가로서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애라는 오찬구와의 혼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www.kci.go.kr

도 “앞날의 꿈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정애라는 성악가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가깝다. 그녀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한다. 정애라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만주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에 기반한 정학도의 사업과 가정으로의 종속은 모두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정학도 부부는 아버지의 건강을 이유로 정애라를 만주로 불러들인다. 정애라가 개인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더라도 정학도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다. 정애라는 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다. 아버지의 병은 정애라의 동경 유학을 유예시키는 근거가 된다.

정애라는 정학도의 딸이면서 동시에 주어진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가부장의 권한은 딸의 이동을 끊임없이 지연시키지만 만주를 이탈하려는 개인의 의지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 정애라는 정학도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기에 앞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한다. 장래를 촉망받는 상황에서 꿈을 포기하는 것은 정애라에게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절망감을 유발한다. 정애라는 동경 유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다. “음악은 동경이 본바닥”이기 때문에 정애라에게 동경 유학은 자아실현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된다. 동경 유학의 포기는 현실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정애라는 만주에 정착하지 않게 된다. 서울로 이동하여 공부한다는 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정애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다.

윤씨는 정애라의 진심을 들으며 오찬구와의 혼인을 추진한 것이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깨닫는다. 윤씨는 “딸 가진 어미라면 딸의 나이 어느 만큼만 되면 젊은 사람을 눈 여겨 살펴”보게 된다고 말한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결혼 적령기의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혼인을 강요하는 것은 정애라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애라는 행복할 수 없다. 윤씨는 딸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정애라의 음악 공부를 허락한다.

그러나 정애라의 음악 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오찬구였다. 정애라의

www.kci.go.kr

어머니는 가정 문제를 오찬구와 상의한다. 오찬구의 아내로 살아가는 삶이 정애라에게 예정된 순간부터 가정 내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오찬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정애라가 여전히 가부장제의 영향 하에 있음을 드러낸다. 정학도가 남긴 유언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존재하며 오찬구에게 가부장적 권한을 (간접적으로) 부여했기에 정애라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다.

오찬구는 정애라에게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어머니는 얼마나 거룩한 이인지 교양의 힘”으로 깨닫길 원한다. 정애라는 “농촌에 못 박혀 흙으로 벗을 삼고 일생을 평범한 가정부인으로 마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정애라는 북향정신을 이해함으로써 아버지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딸이 되어야 한다. 오찬구는 “성악을 통해 음악의 순수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선과 진의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통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사유하는 방식을 확장하는 것과 같다. 절대적인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정애라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북향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건설은 민족이라는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의 정체성은 민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된다. 『북향보』에서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은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헌신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사적인 욕망을 소거해야 한다. 북향정신의 이념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정애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박병익에 의해 목장이 완전히 매각되는 시점에서 정애라는 그 어떠한 것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목장이 은행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정애라는 각종 억압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신문을 통해 마준영의 거금(醵金) 취지문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정학도의 문하생으로부터 편지가 날아든다. 목장이 매각되는 시점에서 문하생의 후원금은 정학도의 사업을 후원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획득한다. 목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정학도의 문하생에게 있어 스승의 유업을 완수하는 일이 된다. 목장의 위기는 북향도장의 건설에 지장을 주며 최종적으로는 북향정신에 기반한 공동체의 구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야

www.kci.go.kr

만 『북향보』의 인물들은 이상적인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 공동체를 향한 신념이 거대한 관계망을 형성하며 이들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독지가의 자본"[22]이라는 형태로 정애라의 후원금이 출현한다. 북향정신에 기반한 공동체는 세속성으로부터 독립된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다. 성금이라는 자발적인 행위에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하생들의 자본은 어떠한 위험도 수반하지 않는다. 이들의 후원금과 비교했을 때 축음기회사에 연원을 둔 정애라의 후원금은 이상적인 자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기신 사업을 살리는데 딸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최초의 동기"가 세속성을 탈각시켰기 때문에 공동체가 용인할 수 있는 자본으로 전환된다.

막대한 후원금을 통해 목장의 위기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정애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서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애라는 결말부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춘다. 『북향보』의 서사에서 공동체가 정애라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엄격하다. 개인주의적 삶을 산다는 것은 공동체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설정한 범위를 이탈한 행동은 무질서로 간주된다.

『북향보』의 인물들은 정애라를 문제적인 인물로 상정한다.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정애라의 개인적인 욕망은 "정학도의 딸이 아비나 어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으로 이해된다. 정애라는 동경 유학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위해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고적과 비애를 희생하면서 딸에게 베푸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정애라의 서울행을 "사내와의 도피행"으로 이해하며 딸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으로 평가한다. 정애라의 진실된 동기는 끊임없이 왜곡되는 것이다.

---

22) 오찬구와 마준영은 20일 사이에 1만 5천원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학도의 문하생은 스승의 유업을 살린다는 목적 하에 열정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지만 그들이 내놓은 돈은 10원 전후였다. 10원, 20원의 돈으로는 기한 내에 1만 5천원이라는 거금을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애라는 서울로 올라가 3천 500원이라는 돈을 마련하여 윤룡근이라는 이름으로 후원한다.

www.kci.go.kr

정애라가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축음기회사에 들어간 상황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목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정애라는 유행가수 생활을 한다. 축음기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서 존재하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체제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축음기회사에 진 빚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정애라의 신체는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마준영은 이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정애라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동기는 선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축음기회사의 선전물로 타락했다는 결과만으로 정애라의 행동을 비난한다. 축음기회사의 선전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한 채 정학도의 딸이 타락했다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이상적인 공동체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배제함으로써 형성된다. 유행 가수는 세속적인 가치를 투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표로 존재한다. 이러한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 한 정애라는 『북향보』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학도의 정신을 계승한 차기 만주 개척자와 정학도의 피를 이은 딸이 결혼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완성하라는 과제가 실현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애라는 외부로 추방당한다. 정애라는 북향정신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포섭할 수 없는 타자로 존재한다. 『북향보』의 서사가 구현하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정애라에게 배타적인 공동체로 형상화 된다.

## Ⅳ. 제국의 기획과 탈식민의 (불)가능성

『처녀지』에서 남표와 선주는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다. 이들은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한다. 남표와 선주 사이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결혼 제도가 개입할 때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한다. 선주의 부모님은 딸의 결혼을 통해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www.kci.go.kr

부유한 선주의 집안에 명예를 가져다줄 수 있다. 따라서 "행세하는 집안의 의학도"인 남표는 선주의 결혼 상대자로 적합한 것이다. 이들의 결합은 남표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때 가능하다. 선주의 부모님은 "뜻하지 않은 불행"[23]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남표 대신 다른 사람과 선주를 결혼시킨다.

남표는 선주와의 파혼이 "자신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의사로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추진하는 것은 선주의 집안에 어떠한 이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세속적 안목"에서 이들의 결혼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남표는 현실적인 장벽을 선주가 "신의를 지키는 사랑"으로 극복해주길 바랐다. 사랑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심이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믿음이 배반당했을 때 남표는 "일시적인 자살 충동"을 느낀다. 남표는 이별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주에게 세속적인 이미지를 투영한다. 그는 선주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호화로운 환경"에서 자란 선주는 태생적으로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의 순수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따라서 남표의 내면에서 선주를 향한 감정은 추방된다.

이러한 과정은 『처녀지』의 서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처녀지』는 의학도 출신 지식인의 만주 개척을 다루는 소설이다. 결혼 제도에서 이탈한 남표는 선주에게 쏟았던 열정을 투사할 대상으로서 제국을 찾게 된다. 이러한 의료 개척은 만주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남표는 선주와 파혼 이후 이별의 상처를 억압하는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사적 감정을 통제했다. 남표의 열정은 세속적인 욕망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자리라도 사양하지 않을 결심"이 만들어진다. 그는 "궁벽한 시굴"이야말로 자신과 같은 의학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진정한 의료 보국은 문화의 수준이 높고 문명의 혜

23) 서재길은 남표의 "뜻하지 않은 불행"이 사회주의 사상운동과 관련된 사건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서재길, 2013, 「식민지 개척의학과 제국 의료의 '극북(極北)': 이기영의 처녀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연구, 155쪽).

www.kci.go.kr

택이 많은 도시보다는 농산어촌의 무의촌"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표는 외부로부터의 물질성을 기준으로 의학도로서의 사명의식을 내면화한다. 의료 행위의 본질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의사는 부와 명예를 보장해주는 직업으로 인식된다. 이는 "현재의 비상시국에 대한 의료보국"을 실천하려는 남표의 지향점과는 거리가 멀다. 남표를 둘러싼 외부 환경들은 그가 투쟁해야 하는 공간으로 변화한다. 남표는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자신을 끊임없이 분리하고 사적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의료 개척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특히, 선주와의 파혼은 대동병원 간호부인 경아를 남표의 배우자로 호명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를 마련한다. 『처녀지』의 서사가 의료개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경아는 의학도인 남표와 의료 행위를 공유하게 된다. 의료 개척을 수행하는 남성과 이를 보조하는 여성이라는 이상적인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표와 경아의 관계는 제국이라는 매개체가 있을 때 성립한다. 만주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남표는 자신의 열정을 제국을 향해 투사한다. 경아가 남표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물질적인 가치들이 개입되면 이들의 관계는 멀어진다.

경아는 의학도로서 성공하길 바라며 남표의 신가진 행을 배웅한다. 남표는 경아의 "성공"이라는 말에 불쾌감을 느낀다. 그의 입장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개업하는 의사는 물질적인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다. 의사로서 출세하는 것은 남표의 지향점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주로 묶일 수 없다. 경아의 "성공"은 남표의 미래를 응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었으나 남표가 이해한 "성공"에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의료 행위에 대한 순수성이 보장될 때 남표와 경아의 결합이 가능하다.[24]

선주는 남표와 파혼한 이후 종로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는 백기천과 결혼한다.

---

24) 남표에게 있어 경아는 사랑을 유발하는 존재가 아니다. 남표는 경아를 사랑하는 누이처럼 대하며 경아가 자신을 따르는 이유에는 고결한 우정이 있었을 거라 추측할 뿐이다. 이경재는 남표와 경아의 관계가 이념적인 결합을 중심으로 한 '붉은 연애'의 양상을 보인다고 말한다. 자세한 논의는 이경재, 2012, 「이기영의 처녀지연구 - 남표와 선주의 죽음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3, 만주학회 참조.

www.kci.go.kr

그녀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말한다. 선주가 추구하는 사랑에는 물질적인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선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통해 선주는 기존의 가족관계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가정을 형성했다. 가정은 정체성을 재편하는 공간으로 존재하지만 선주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선주는 가만히 앉아서 독서하는 삶을 반복한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녀는 권태로움을 느낀다. 선주는 남편과 함께 하이킹을 가거나 여행을 떠난다. 자신을 억압하는 가정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일탈로 이어진 것이다. 선주의 남편은 이러한 일탈을 “여성들에게 흔히 있는 변덕심이나 응석”으로 이해한다. 선주와의 여행은 “동부인”이라고 칭할 정도의 자랑거리에 그친다.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주의 남편은 그녀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선주를 장식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선주는 가정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한다.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는 권태로움을 심화시킨다. 만주에서 남표가 방황한다는 소문[25]을 들은 선주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낀다. 남표의 방황에 대한 오인은 가정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선주의 욕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선주는 사랑의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남표가 아편 중독에 빠졌다고 판단한다. 남표가 방황하는 원인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를 돕고자 한다. 남표와 다르게 선주는 자신을 억압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선주는 자신의 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표의 정착을 돕고자 한다. 선주를 억압하던 재력은 남표를 위해 헌신하는 재화로 기능한다. 선주는 남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

25) 남표는 만주에서 술과 아편에 의지하는 생활을 한다. 물질적인 욕망을 버린 그는 이상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남표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나 이를 현실화 시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번민을 느낀다. 남표가 아편 중독을 이겨내고 제국을 위해 헌신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은 통과 의례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내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직접 마주함으로써 삶의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던 것이다.

www.kci.go.kr

는 가정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선주는 경아가 신가진으로 떠나는 남표를 배웅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녀는 남표와 경아를 연인관계로 오해한다. 경아의 존재는 실연의 상처를 이유로 남표의 삶에 개입할 근거를 부정한다. 남표의 미래에는 경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주가 개입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선주는 경아를 보며 "남표가 그 여자와 장차 만나기 위해서 지금 신경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표의 신가진행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경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인식된다. 선주의 내면에는 "경아가 남표를 뺏어간 것 같은" 시기심과 함께 "심술구진 본성이 울컥 치밀어 모욕을 당한 때처럼 자존심이 꺾"이는 감정이 자리 잡는다.

남표를 향한 선주의 호의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질투심이 개입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악화된다. 선주의 공격적인 행동은 그녀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경아가 남표를 배웅하는 장면은 이들이 연인 관계라는 심증에 확신을 더한다. 경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남표의 행위는 선주를 속이는 거짓말로 인식된다. 선주는 남표에게 경아의 존재에 대한 확답을 들어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남표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과 경아의 관계를 추궁하는 선주의 행위에 "머리 속에서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남표는 정서적으로 동요하며 선주를 "악마"이자 "매춘부"로 표현한다. 남표는 선주의 사랑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그녀의 진심을 왜곡한다. 선주에 대한 강한 적대심은 선주가 남표와 감정적으로 교류할 기회를 차단한다.

선주는 남표와 경아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한다.[26] 선주의 전략은 이들의 감정선을 방해하여 결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남표의 정안둔 이동은 남표와 경아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감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직접적인 소

26) 선주는 경아에게 경아의 애정표현으로 인해 곤란함을 느낀 남표가 북만으로 떠났다고 말한다. 경아는 남표와의 약혼을 조르며 귀찮게 따라다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선주의 거짓말로 인해 경아는 남표를 불신하게 되고 그 결과 신경 쇠약증에 걸린다.

www.kci.go.kr

통이 불가능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한다. 선주는 시공간적 단절의 틈새에서 서로를 오해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

선주의 전략은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외부의 위기 앞에서 차단당한다. 정안둔으로 떠난 남표는 박만용의 투서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다. 불법 치료 혐의를 받게 되면서 남표의 의료개척은 중단된다. 남표의 심정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대동병원에 있는 경아였다. 그는 경아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싶어한다. 남표가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경아라는 점은 그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주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교란 시키지만 제국의 완결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부적 제휴가 강화될 때 선주의 일탈적인 사랑은 철저하게 거부당하기 때문이다. 경아는 남표와 오해를 풀기 위해 정안둔으로 이동하게 된다. 의료 개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경아가 이동했다는 점은 『처녀지』의 서사에서 개척을 수행하는 남성과 이를 보조하는 여성이라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의료 행위를 공유함으로써 제국 의료에 헌신하는 주체로 나아간다.

정안둔에서 경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 개척에 반영된 젠더 정치의 측면 때문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본격적인 전시 동원체제에 돌입하게 되면서 여성의 인구 재생산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다.[27] 『처녀지』는 이와 관련하여 우생학 담론을 중심으로 모자보건과 인구문제를 반영하게 된다.[28] 남표는 부녀자

27)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본격적인 전시상황에 돌입하게 되자, 인구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산아제한을 금지하고 암묵적으로 다산을 장려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일제는 분격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과 더불어 이를 활용할 인적자원의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938년 일본에서 후생성이 신설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에도 후생국이 신설되어 인적자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은 '병참기지'로서의 그 중요성 때문에 인구증식이 필요했다. 따라서 전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던 「인구정책확립요강(人口政策確立要江)」(1941)에 맞추어 '인구증가'와 '자질증강'을 위한 방책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인구가 증가해고 개개의 자질이 열등해서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으므로 수의 증가와 동시에 질의 향상도 도모해야 했다. 이것은 전시인력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강한 자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출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현숙, 2020, 「일제시기 출산통제담론 연구」,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246-247쪽).

28)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의 논의 참고(이선옥, 2003, 「우생학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젠더정치 - 이기영의 『처녀지』를 중심으로」, 『실천문학』 69, 실천문학사).

www.kci.go.kr

를 대상으로 독일 우생학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자보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경아는 남표가 진료를 볼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고 부인야학강습을 통해 담론을 실천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반면 선주는 위험한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선주는『처녀지』가 만들어나가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포용할 수 없는 인물이다. 선주가 설정한 사랑의 범위에는 물질적인 충만함까지 포함되어 있다. 선주는 남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남표는 물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시킨다. 남표가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선주에게 세속적인 이미지를 투영했다는 점은 남표의 세계에 선주는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선주가 보여주는 복잡한 정서는『처녀지』의 세계에 편입할 수 없는 사람의 히스테리와도 같다.

선주가 위험한 여성이라는 점은 단순히 선주가 물질적인 욕망을 상징하기 때문이 아니다. 선주의 복잡한 감정과 자신에게 적대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 제국을 교란시키는 존재로 형상화된 것이다. 규율권력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선주의 행위는 해석되지 않는다. 선주는 만주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율권력의 외부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예외성은 결국 선주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간다.

> 그런데 오늘 정안둔에로 와보니 평화한 전원의 정취가 자못 마음을 안정식힐 뿐더러 더욱 남표와 경아가 마치 결혼한 부부 간과 같이 정다웁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부러워 보인다. 참으로 그들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선주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왈칵 심청이 끓어 올렀다.(중략) 그때 남표를 배반한 것은 물론 자기의 잘못이라 하겠지만 지금 다시 냉정히 비판해 본다면 거기에는 부모의 간섭이 자기의 의사보다 더 많이 포함 되었었다.(중략) 선주는 결코 남표보다는 지금 남편이 출중하대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다. 첫째는 부모와 일친척이 그를 축켜 세우고 그 집이 큰 부자라는 그 점은 알 수 있었지만 좌우에서 그 혼인이 대단하다 하다고 욱이는 바람에 그럴 상 싶어서 아무래도 좋다는-심드렁히 대답을 하였슴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진심으로 그야말로 영육이 합치해서 된 결혼이라면 오늘날 그와의 부부 생활이 어찌 이대지도 무미하고 평범하단 말이냐, (중

www.kci.go.kr

략) 결혼에 실패한 여자는 또한 인간의 실패자다. 이것을 여자의 불행이라 할는지는 모르나 역시 어찌 할 수없는 여자의 특수한 지위(地位)이다. 그것은 운명이라 해도 좋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여자들은 자기의 이런 지위를 깨닷지 못하고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였다가 인생의 비극을 맛보고 운다. 개중에는 실련의 독배를 마시는 가엾은 처녀도 있거니와 자기처럼 천둥벌거숭이로 허영에 들뜨다가 일생을 그르치는 여자도 많은 것이다.(429-432)

선주는 남표와 경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본다. 『처녀지』에서 선주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인물로 드러난다. 남표와의 관계에서 능동적이었던 것과 달리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수동적으로 행동한다. 그녀는 결코 현재의 남편이 남표보다 출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백기천은 이상적인 배우자가 될 수 없지만 "그 혼인이 대단하다고 우기는" 주변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다.

자신에게 불합리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선주는 집안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선주는 "어찌할 수 없는 여자의 특수한 지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결혼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말한다. 선주는 자유로운 감정에 기초한 사랑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전근대적인 질서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점은 선주가 전근대적인 사회가 요구하던 혼인제도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임을 보여준다.

선주의 불행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혼인제도에서 발생했다. 자유로운 연애가 이루어지는 외적인 환경에는 어떠한 구속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환경에서 순수한 사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집안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백기천과의 결혼이 강제되면서 선주는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했다. 배우자와의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는 선주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 선주가 남표를 향한 욕망을 끊임없이 드러낸다는 점은 자신을 억압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이해될 수 있다.

www.kci.go.kr

결혼 제도의 모순을 자각한 시점에서 선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다. 선주의 욕망은 남표를 경유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남표는 선주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한다. 선주가 몸을 담고 있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주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고자 한다.

『처녀지』의 서사에서 균열이 가는 지점은 선주의 죽음에 있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남표와 경아는 선주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선주의 죽음 앞에서 윤리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남표는 스스로를 규율함으로써 사적인 감정을 통제했다. 이별의 상처를 억압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인해 선주의 진심은 왜곡된다.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의 죽음은 남표를 향한 선주의 감정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선주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남표는 비로소 선주가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선주의 자살은 남표가 금기시했던 영역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억압해 온 감정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아는 선주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남표와 선주 사이에 자신이 개입할 공간이 없음을 인식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추상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목숨을 건 사랑이라는 방식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실된 마음을 드러낸다. 경아는 자신이 남표와 가까워지지 않았더라면 선주가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타자의 죽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부여된 이상 남표와 경아의 결합은 불가하다. 선주는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남표와 경아 사이에 선주가 유령처럼 떠돈다는 것은 선주가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살아 있음을 반증한다.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서 선주는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로 살아 움직이며 개인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만주는 선주에게 적대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선주가 체제를 전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선주는 끊임없이 배척당했으나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남표와 경아의 삶에 또다시 틈입함으로써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진다. 선주는 단일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배제되어야 할 타자였으나 공동체 구성원을 자신의 영역으로

www.kci.go.kr

끌어와 존재를 각인시킨다. 남표와 경아는 동지애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의료 개척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축하지만 선주의 존재로 인해 내밀한 감정의 영역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 감정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공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처녀지』는 제국이 원하는 의료 개척모델에 완전히 부합한 서사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 V. 결론

만주 개척 사사에 나타난 젠더 표상을 분석하는 것은 타자를 생산하는 다양한 범주들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타자의 생산은 단일한 범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자는 민족과 계급 그리고 젠더와 같은 요소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대륙』의 유키코, 『북향보』의 정애라, 『처녀지』의 선주는 서사가 구현하는 지배 담론에서 벗어난 인물들로 만주를 재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대륙』의 유키코는 상류층 지식인 여성으로 오야마와의 약혼관계를 통해 만주 서사에 등장한다. 유키코와 오야마 사이를 규정하는 것은 국민국가 내부의 관계성이다. 유키코와 오야마의 약혼은 일본인 기업가의 사업관계에 의해 성립되었다. 대공황 당시 오야마 집안은 고토 사장의 도움을 받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약혼은 이들의 신뢰를 확인하는 징표로써 존재했다. 유키코는 동경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 유키코는 만주에 머무르면서 오야마의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오야마가 조마려와의 사랑을 통해 일본인의 우월성을 자각한 시점에서 유키코의 진심은 전달되지 못한다. 유키코가 만주를 사유하는 방식은 오야마에 대한 애정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오야마에 대한 유키코의 애정에는 식민주의와 계급관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은 성립될 수 없다. 오야마에 대한 애정이 이타주의로 전환되었을 때 만주 서사의 외부에 등장하는 유키코는 내부로 유입된다.

www.kci.go.kr

『북향보』의 정애라는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만주 개척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정학도를 아버지로 두고 있다. 정학도는 정애라가 농민의 아내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정애라는 만주에서 벗어나 성악가로의 꿈을 실현하길 희망한다. 정학도의 사망 이후 오찬구에게는 북향정신에 기반한 조선인의 자치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업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정애라는 성악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오찬구의 아내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예정된다. 정애라가 가족 단위에서 아내나 어머니의 자격으로써 등장할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애라는 결혼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이를 거부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오찬구의 아내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애라는 서울 덕화전문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한다. 동경 음악학교 유학의 포기는 현실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정애라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정학도의 사업이 위기에 처할수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집력은 높아지며 공동체적 신념에 어긋나는 존재에 대한 비난은 심해진다. 정애라는 정숙함을 갖추지 못한 인물로 이해되며 정학도의 딸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막대한 후원금을 통해 목장의 위기를 해결하더라도 정애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공동체 내부의 타자로 위치하게 된다. 서사의 마지막에서 정애라가 사라진다는 사실은 조선인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공동체에도 추방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처녀지』의 선주는 남표와 파혼한 사이로 등장한다. 식민지 의료개척 서사의 외부에 존재하던 선주는 남표에 대한 사랑을 통해 서사 내부로 진입한다. 선주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가정 안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선주는 남표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남표는 선주와 파혼을 한 이후 이별의 상처를 억압하는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사적인 감정을 통제했다. 남표로부터 선주는 끊임없는 거부를 당하게 된다. 선주는 남표와 경아 사이의 감정선을 교란시키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선주가 보여주는 복잡한 정서는 『처녀지』의 세계에 편입할 수 없는 사람의 히스테리와도 같다.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만주는 선주에게 적대적인 곳으로 형상

www.kci.go.kr

화된다. 선주는 육체를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다. 선주의 죽음은 남표와 경아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부여하며 이들의 결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처녀지』는 제국이 원하는 호명의 정치에 완전히 부합한 서사를 만들어 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처럼 억압적인 현실에서도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려는 여성들의 움직임은 항상 존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배와 종속을 구분하는 경계를 허물며 지배 권력이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틈새의 영역에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은 이처럼 지배와 종속 관계를 본질화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사 내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물들을 함께 분석했을 때 만주 개척 서사에 존재하는 젠더 정치의 측면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체가 배척했던 여성들의 삶을 추적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설정된 인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기영, 2015,『처녀지』, 역락
안수길, 2011,「북향보」,『안수길 전집』 제1권
한설야, 2008, 김재용 · 김미란 · 노혜경 편역,「대륙」,『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 2. 논문

곽규환 · 김해림, 2018,「만주국 시기 일본인의 여성 동원과 만주 이민: 만주개척여숙 사례를 중심으로」,『만주연구』 25, 만주학회
_____, 2020,「만주국 시기 일본의 대륙신부 정책의 성립과 전개-일본 현지 대륙신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비교중국연구』 1(2)
김재용, 2006,「일제말 한국인의 만주인식: 만주 및 '만주국'을 재현한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12, 동북아역사재단
김종호, 1993,「1940년대 초기 만주 유민소설에 나타난 '정착'의 의미-「대지의 아들」과 「북향보」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 25, 국어교육학회
김주현 · 권혁건, 2001,「일제 강점기 만주의 농업 기술을 통해 본 민족 문제 시론(試論) - 안수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박정애, 2020,「조선인의 만주 이주 정책과 '대륙 신부'」,『여성과 역사』 33, 한국여성사학회
방기중, 2003,「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동방학지』 12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서재길, 2012,「안수길 장편소설 〈북향보〉 연구」,『현대문학의 연구』 46, 한국문학연구학회
서재길, 2013,「식민지 개척의학과 제국 의료의 '극북(極北)': 이기영의 처녀지를 중심으로,『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연구
서호철, 2011,「국제결혼 중개장치의 형성- 몇 가지 역사적 계기들」,『사회와 역사』 91, 한국사회사학회
소현숙, 2020,「일제시기 출산통제담론 연구」,『역사와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2020
아야코 타카하시, 2020,「한설야의『대륙』연구: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재, 2012,「이기영의 처녀지연구 – 남표와 선주의 죽음을 중심으로」,『만주연구』 13, 만주학회
이미나, 2013,「1930년대 '금광열'과 문학적 형상화 연구- 광업조선소재 작품을 중심으로-」,『겨레어문학』 55, 겨레어문학회


www.kci.go.kr

이선옥, 2003,「우생학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젠더정치 - 이기영의『처녀지』를 중심으로」,『실천문학』69, 실천문학사, 2003
이해영, 2017,「'만주국'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북향보』」,『만주연구』23, 만주학회
하종문, 2009,「일본의 쇼와공황과 민주주의의 엇박자-」,『역사비평』87, 역사비평사

### 3. 단행본

陳野守正, 1992,『大陸の花嫁:「満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舎
한석정, 2007,『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www.kci.go.kr

■ Abstract ■

# A Study on the Gender Representation in the Manchukuo Cultivation Novel in the Late Colonial Period

Yun, A-yeong (Kookm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nder representations in the Manchukuo cultivation novels in the lat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Daeryuk, Bukhyangbo* and *Cheonyeoji*. In *Daeryuk*, Yukiko who is an upper-class intellectual, working as a doctor in Japan would engage herself to Oyama. Thus, she would be upgraded by him to a figure representing the colonial and economic power. She also would reestablish her identity by converting her love of Oyama into an altruism. In *Bukhyangbo*, Jeongae who has received a modern education hopes to realize her dream of vocalist, departing from Manchu. Unlike the characters who wish to build an ideal community in Manchu, she pursues her own individual life. After all, she would be banished because she could not be admitted into a member of the community. In *Cheonyeoji,* Seonju who has grown up in a rich family would break off her engagement to Nampyo. She who has existed outside of the epic or the medical cultivation would advance into the inside of the epic through her love of Nampyo. She attempts to attach a meaning of her life through the material aid to Nampyo. However, she would select suicide because her love is denied. The Manchukuo cultivation novels always feature the women who wish to reconstruct their life. Such efforts imply that the dominant discourse would not perfectly control their life. Nevertheless, the Manchukuo cultivation novels feature the efforts to construct an imaginary community through an individual subject. When such a scheme is combined with the ways of representing the women, the problem of silence would follow. The characters beyond the area of representation would be excluded or banished, and therefore, their existences could not be interpreted. If women's specific life should be traced centering around their experiences,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Manchukuo cultivation novels anew.

www.kci.go.kr

Key words: *Daeryuk, Bukhyangbo, Cheonyeoji,* Gender, Coummunity, Other

www.kci.go.kr